

# “전통가람배치 자연합일 사상”

## 윤장섭교수 평생역작 ‘한국의 건축’ 펴내

“우리 전통 건축물의 특징은 인간적인 친근감,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 부분보다는 전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전통사찰의 가람배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찰 탐 부도 등 불교건축의 역사와 특징을 포함,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를 집대성한 책 《한국의 건축》(서울대출판부)을 평생의 역작으로 펴낸 윤장섭 서울대 명예교수(71·학술원 회원)의 우리 건축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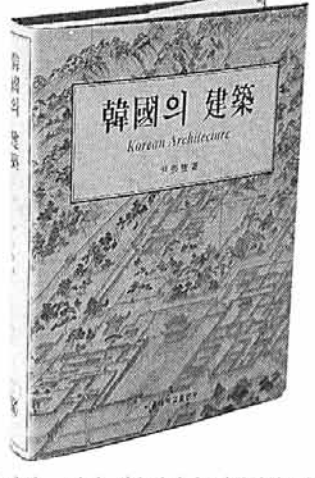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주거지 사찰 탐 부도 궁궐 정원 성곽 분묘 종교

리하선씨의 《조선건축사》(발안) 등 다수 나와 있으나 시대적 분야별로 한정적으로만 서술되고 있다.

윤교수는 우리의 건축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인물로 신라 불국사 석가탑을 건축한 백제인 이사달을 든다. 최근의 부실공사도 주인(건축주)과 일꾼(시공



○윤장섭교수



## 선사~조선시대 건축 총망라 북한자료 포함...中·日과도 비교 “아시아 정신 되살려야죠”

다른 책은 장경호씨(전 문화재 연구소장)의 《고려 조선의 목조 건축》(예경), 김동현 문화재 연구소장의 《한국 목조건축의 기법》(발안) 등 몇 권에 불과하다. 한국건축사 분야의 책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교수는 이와관련 우리의 대표적 전통건축인 사찰의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통사찰의 내부나 주변에 새로운 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지는 것은 경관의 파괴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파괴”라며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지난 8년부터 문화재위원을 10여년 이상 역임하기도 한 윤교수는 최근의 황룡사·감은사 복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추정복원’은 문화재 보호가

## 초등학생에 권하는 책 1천권

### 박강희씨 도서지침서 ‘...어린이책목록’

전 불교인권위 사무처장이자 유아·어린이 도서전문위원인 박강희(40)가 《전국 어린이서점이 권하는 어린이책 목록》(논장)을 펴냈다.

0살부터 초등학생 6학년까지 나이에 따라 분야별로 권할 만한 책 1천권을 꼼꼼하게 소개한 이 목록집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주고 싶은 부모나 교사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모두 1만권을 찍어 전국의 도서관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서점에 무료로 보내고 있다. 또 1년마다 새 목록을 만들어 어린이책의 충실한 길잡이로 만들 예정이다. (02)335-0525

‘님의 침묵’ 불어판출간 만해스님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이 최근 프랑스 오트랑트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LE SILENCE DE NIM》이란 표제를 달고 나온 이 시집은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김현주씨(국채교류재단)와 매기씨씨(PIERRE MESINI,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가 함께 불어역했다.

이번 불어판은 영문판에서 ‘LOVER’나 ‘LOVE’로 번역됐던 ‘님’을 ‘AMOUR’나 ‘AMANT’으로 옮기지 않고 한국어의 어감이나 한국인의 정서를 살려 그대로 ‘NIM’으로 한 점이 돋보인다.



○박강희씨

서역불교조각사	임영애 지음
흔히 한국불교조각에 있어서 인도적이기도 않고 중국적이기도 않은 불교조각양식인 ‘서역적’이라 부르지만, 구체적으로 ‘서역적’ 미술양식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이 책은 1백 여장 이상의 도판을 곁들여 간다라 및 간다라 후기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서역의 조각(혹으로 빛은 조각)을 자세하

불교와 양명학	이리키 겐고 지음
불교심학인 선학과 유교심학인 양명학은 과연 동일한 사상체계일까. 이리키 겐고(일본 규슈대 명예교수)의 《불교와 양명학》은 이런 화두	양명학은 불교처럼 규범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결

**실크로드 불교조각양식 심층분석**

하지 않다. 임영애씨(이화여대 강사)가 펴낸 《서역불교조각사》는 실크로드에 산재한 불교조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한국불교조각과의 연관성을 조명하고 있어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禪사상과 양명학 사상적 흐름비교**

에서 출발해 불교와 양명학, 주자학의 관계를 사상적 흐름에서 비교하고 있다.

저자는 불교와 양명학이 인간 존재의 근원을 논제적으로 드러내는 점과 주자학이 제정한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새로 나온 책...**

▲왕오천축국전(한정섭 편저)=해초스님의 위대한 구도정신을 담은 《왕오천축국전》과 향가문학의 비조인 규여스님의 전기 《규여전》, 신라 선사들의 기이한 행적을 담은 《수이전(殊異傳)》을 통해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한다. 각각 해제와 번역문·원문을 곁들였다.

《불교대학교재편찬위 5천원》

▲한국사회사상사(이은순 외 9인 공저)=불교 유교 등의 종교사상은 사회변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추동

▲생활속의 에너지 요가(린 마르셀 지)=요가는 인체의 전 부위를 개선시킨다. 또 자신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긴장이나 근심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전원문화사 5천원)

▲예에공간예찬(타니자키 준이찌로 지, 김지연 역)=물밀듯이 밀려드는 서구의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과 결과를 담담하면서도 신랄하게 포집했다. 더 부드럽고 조용하며 더 음울한 미적 전통을 예찬한 수필집. (발안 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름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난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터
2	전생연행	김 영 우	정신세계사
3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 집 부	정 토
4	그 마음을 바치라	김 재 응	용 화
5	영원한 대 자유인	강 정 진	경서원
6	불교 절에 대한 바른 이해	정 암	우 리
7	부처님의 유언	공 과	태 일
8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정 승 석	대원정사
9	월월 달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교 100선

**무비스님 ‘불교공부’**

‘시의 최고의 경지는 종교의 궁극적 경지와도 통한다’고 하여서인지 스님들 중에 시조시인이 많다. 오현 이두성우 효경 준원 지원 청화 스님 등은 불교계의 종진 스님이자 시조시인으로서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모두 불심이 깊고 시조 작품들 도 고도의 경지에 들어서 있다. 개인적으로는 오현스님의 ‘산에 산에 사는 날’이란 시조를 좋아한다. 필자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분들의 영향이 크다.

평소 필자는 불교를 인간존중의 종교라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탄생 직후 선포한 ‘현상천하에 내가 오직 존귀하다’는 유익존(唯我獨尊)이란 말씀에 기인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것을 나 즉한 인간인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풀이해 왔다. 그것은 석가모니 자신이자 ‘모든 인간 존재’라는 것이니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재성을 설



이 태 극 (시조시인협회 명예회장)

## 경전에 입각 초심자 수행안내 교리강의보다 생활불교 중시

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무비스님의 《불교공부》(민족사)는 이러한 경소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해준 것이 있는 책이다. 불자인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이 책은 불교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등 불교에 관심이 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이 서지 않는 초심자들을 위한 신행위주의 불교공부 안내서이다. 특히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교리강의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생활상의 불교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었다. 불교 신행의 근본 줄기를 이루어 온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전통적 수행교양방법을 채택하면서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법구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밝게했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 금강경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었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명의 파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출판권고 보내주시면 잘 구입이 보장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서 지음 /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강박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서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달라이 라마-

신국판/280면/값 6,000원